

## 애국심은 고귀한 것이 맞는가?

### 1.서론

우리 조는 국가란 무엇인가를 읽고 나서 정말 국가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책에서는 국가란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선과 악의 개념이 모호하다. 동시에 애국심은 그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그저 감정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말을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애국심은 고귀한 감정이 맞으며 국가의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감정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 2.애국심의 의미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애국심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애국심의 의미를 찾아봤다 애국심이란즉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인터넷에서 찾아볼 경우 애국심을 “국가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 그리고 최상의 국가이익이라고 여겨지는 바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되어있다. 이처럼 애국심은 그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국제사회에서는 구 각의 위상이 곧 자국민의 위상과 같다 다른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여권이 필요하며 여권 중에서도 다른 나라로 가기-위하여 비자 발급이나 다른 절차를 따라야 하는 곳들도 많다. 이처럼 우리는 국가 안에 존속되는 존재이며 동시에 다른 외부 국가에서도 우리를 대표하는 국가로 평가가 된다. 이처럼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국제사회는 국가로 평가받고 그곳에 시민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국가에 대한 사랑과 국가의 자부심이 고귀한 감정이 아니라면 무엇도 고귀한 감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 3.애국심을 이용하는 것은 고귀하지 않다

애국심은 고귀한 감정이 맞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애국심을 고귀하지 않다고 느끼는지 생각해 보았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국가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애국심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애국심은 자신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이다. 그렇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애국심을 요구하며 이용하기에 애국심을 가지지 않더라도 유명인들에게 애국자라고 칭하며 높여준다. 그렇게 애국심의 의의는 쇠퇴하며 불명예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 4. 결론

애국심은 고귀한 감정이 맞다. 하지만 강요된 애국심은 잘못되었으며 애국심의 의미가 퇴색된 것 역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가의 자긍심을 가지는 건 고귀하게 여기는 게 맞지만 그것에 심취해서도 안되며 또한 강요된 애국심도 아니어야 할 것이다.

#### 출처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애국심과 민주주의가 결합된 민주시민교육- 애국주의 논쟁을 중심으로 - \(kci.go.kr\)](#)

피인러브, 2022년대한민국 여권파워, 무비자로190개 국가 여행가능  
[2022년 대한민국 여권파워, 무비자로 190개 국가 여행 가능 \(philinlove.com\)](#)